

序 文

甲寅 八月에 第六回譜의 刊行辭를 쓰고 十年만인 甲子八月에 또다시 譜牒 刊行에 對한 말을 쓰게 됨은 世上에 드문 일인 同時에 不德한 自身으로써 猥濫한 느낌을 禁치 못하는 바이다. 먼저 甲寅譜가 先所事業으로 말미암아 十八年만에 시작되어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였을 때 叅譜僉宗의 고마운 協力은 實로 보람을 느낄만한 빛나는 일이었다. 그런데 大宗中の 劃期的인 事業에 끝끝내 不參한 族親들의 그 後心境은 어떠하였을까! 或은 院享에 或은 墓奠에 參與하여 如在의 誠을 다할 때 나 宗會에 參與하여 每事를 論議할 때 그 흐뭇한 雰圍氣속에서도 過去를 뒤우치는 안타까운 表情이 持續되었다고 한다.

이는 사람마다 固有的 常情일 것이다. 그러나 매우 可尙한 고마운 일ियो 多幸한 일이었다. 이 點을 理解하고 歡迎하고 同情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甲寅譜의 補完策이 論議되었다. 말하자면 甲寅譜에 漏落된 모든 族親이 遺憾없이 叅譜가 되고 爲先上에도 均等한 機會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計劃인데 純粹한 敦睦心의 作用인 것이다. 不肖 역시 그 寬容性에 感動되어 一門이 呼應토록 推進하였다. 沃舒兩派가 完全叅譜되고 十年동안 一門의 生卒嫁娶를 收錄하고 나니 堂堂한 第七回譜가 完成되었다. 各處 各派의 代表 僉宗의 勞苦에도 感謝하거니와 本部幹事들의 忍耐와 克服으로 大過없이 完遂된 것을 致賀하는 同時에 爲先에 置重한 甲寅譜와

睦族에 置重한 甲子譜의 精神이 一致되어 永遠한 繁榮의 基本이 될 것을 믿고 빌며 樂觀하는 바이다.

이번 七回譜는 먼저 六回譜와 關聯이 特殊하므로 簡單한 이 刊行辭도 六回譜의 그것에 連續시켜 둔다.

西紀 一九八四年八月下澣 相宇 謹識

龍宮全氏世譜重刊에 즈음하여(第六回譜)

우리 龍宮世譜는 雲溪先祖(一五七八—一六四六)께서 編輯해 두신 草譜가 守分(一六六二—一七三四) 野隱(一六六三—一七二〇) 兩公의 繼述을 거쳐 百二十年後인 英祖乙酉(一七六五)에 두卷 冊子로 刱刊되었으며 그後四十五年 純祖己巳(一八〇九)에 譜草를 整理하였으나 物力拘碍로 印出을 못하고 다시 四十餘年을 經過하여 哲宗壬子(一八五二)에 第二回譜가 三卷으로 續刊되었는데 이를 辛亥譜라 불러왔음은 物心兩面으로 特히 注力한 年號를 指稱한 것이다. 高宗辛巳(一八八二)에 三回譜가 六卷成帙로 刊行되니 가장 標準年數인 三十年만이었고 國恥後丁巳(一九一七)에 倭人의 妨害를 입어가며 第四回譜九卷을 刊出하니 三十七年만이요 光復後十一年 乙未(一九五五)에 第五回譜七卷을 發行하니 三十九年만인데 分斷國土와 中國日本等 移住地에 連絡不能의 恨이 不少하였으나 十數代나 漏譜되었던 舒川派의 叅譜를 渾門이 欣賀하였던 것이다. 그後二十年未滿인 오늘에 例外로 빨리 第六譜의 印出을 보게된 것은 實로 例外의 動機가 있었던 것이다.

族譜는 元來 人倫을 核心으로 하는 道義生活에서 敬祖와 睦族을 爲해서 마련된 規法이라 人倫道義가 頽廢하고 自由享樂의 思潮가 膨脹해가는 今日에 있어 譜牒에 對한 觀念이 漸次 稀薄해짐은 社會의 必然的 現像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宗中에는 世態가 이렇도록 先代의 아름다운 傳統을 보다더 持續시켜 보려고 努力하는 人士가 많아서 世譜의 續刊을 서두르는 同時에 蘇川書院物力補強策을 譜所에 一任推進하자는 論議가 并發되어 急速度로 呼應을 얻게된 것이다. 昨年 十月菊坡先祖墓庭에서 不肖 敢히 僉議에 順應하여 幹役의 자리에 赴任한 數日後 東一甫를 同伴하여 完議를 얻지 못한 서울을 거쳐 忠南 忠北을 巡訪하여 各派의 同意를 얻었는데 結局 沃舒兩派가 不參한 것은 甚히 遺憾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太宗中の 宿願이었던 典書公墓道豎碣을 비롯하여 竺山君墓前碑 更新과 寺正公墓道豎碣을 삼가 完遂하였으며 院畚買入 庫舍建築等을 豫定대로 마친것은 오로지 叅譜僉宗의 精誠의 結晶임을 밝히고 大田 洪濟氏가 單獨으로 沃川派 中에서 側近者數十名の 單子를 拔草해 와서 叅譜를 請할 때는 이미 印刷가 끝날 무렵이었으나 年老하신 族丈의 誠意에 感應하여 特히 叅譜되는 方便을 取했음을 附言하며 이번 族譜는 發論當初부터 先所事業에 置重하였으므로 이에 積極協力하신 同譜僉宗의 尊祖睦族의 빛나는 精神이 後孫에 垂範이 되어 길이길이 培養되어지기를 삼가 祝願하는 바이다.

西紀一九七四年甲寅八月下澣 竺山府院君十九世孫 相宇삼가씀

第六回譜序文

夫一人之身_이 分而爲千萬_{하니} 踈遠寢忘_에 不至於路人者 幾希矣_라 盖以所處之相遠_과 貴賤之各殊_로 縱得並世而出_{하야} 未嘗一接眉宇_{하고} 同根而生_{하야} 未嘗一唱花樹_면 豈期安危之相仗而哀慶之相恤耶_아 自 祖先_{으로} 視之_면 均是孫耳_니 豈有厚薄也_로 以千萬者_로 使知同根_면 捨譜而奚以哉_아 譜之爲義_는 所以繼統緒_{하고} 收宗族而敦親睦_{하며} 廣仁厚爲務_니 今吾宗人_이 所當勉焉者 亦惟在斯而余於是_에 尤有深感焉_{이라} 有族而無譜則奚以知其族之親踈_며 派之遠近也_요 是以_로 漢之袁楊_과 晉之王謝 並有氏族之攷而至於我東_에 名門右族_과 高閥奕葉_이 厥有譜牒_{하야} 所以知其親踈遠近也_라 吾宗之全_이 上自羅麗_로 代有聞人_{하야} 至菊坡先祖_{하야} 莞然以名德清宦_{으로} 業廣中朝_{하고} 蠲貢除瘼_{으로} 以安東土_{하니} 生以爲一國頌德之臣_{하고} 卒而享百世追仰之院_{하야} 勲功德業_이 焜耀史乘_{하야} 蔚然爲吾宗之大祖_니 奚止於譜牒之冠首也_요 今距 先生之世已作半千年事_{하니} 爾來_로 子孫之蕃衍_과 科甲之蟬聯_이 無非積德厚仁之致則敢不圖所以體先之補世教垂無窮之志也哉_아 客年花樹之席_에 續刊之議 始發而或因相居之睽違_와 衆論之牴牾_로 隔歲猶豫之餘_에 相宇氏東一氏深歎文運之零星_{하고} 懼其後世之難編_{하야} 不計財力_{하고} 汲汲圖刊_{하니} 相哲氏與德烈在道另贊協謀_{하야} 使載軾甫_로 讎校抄寫_{하고} 歷十數朔而功告訖焉_{하니} 豈不盛舉也哉_아 凡吾門親_이 開卷而油然生孝悌之心_{하고} 慨然有信義之志則亦足爲世教之一助云爾_라

甲寅八月 後孫 炳郁 謹識

舊譜序

先王孝友睦婣之教一廢而譜牒之法이作焉하니所以著系世辨昭穆하야油然生孝悌之心於百世之遠하니其功이詎不大歟아蓋自高曾以上으로寢遠則寢忘하고總祖以下로寢疎則寢薄하니遠而不至於薄者一亦在夫常存於心하고每寓乎目하야知一氣之相連하고無間於疏遠을如水之有派流而同一源也며如木之有柯條而同一根也則介然之傾에豈不有以全其天性之眞而闖發其親親之情哉아此는歷代諸賢之所兢兢致力於譜牒之法者也라竺山之全이遠自羅麗로至菊坡先生하야以文學賢良으로中元朝制科하야官至金紫하고歛而東歸하야引年乞退에築亭於省川之上하야逍遙吟哦하고以終老其身而與益齋蘭溪諸賢으로相與爲金石之交하야唱酬之什이載在東文選中하니其清風逸響이靄然被於百載之下하야宜其源遠流長하고根深葉茂하야科甲이蟬聯에愈久而愈繁也니不幸累經兵燹하야譜系中絕에今可考者十八世矣라雲溪公이始修草

譜^하 佐郎公^이 有意劖劓而俱未及就^하 迺今遠近雲仍^이 合謀齊力^하 追成先志^하 譜始成役^에
已就而以弁卷之文^{으로} 屬於象靖^{일세} 辭以非其人而不得則作而曰譜牒之有關於世道誠有如
向所云者而如我 菊坡先生^은 文章懿德^이 可爲百世之師表^은 況於子孫之爲一氣者乎^아 自
細而祖免^하 自祖免而親盡^은 勢也而自 菊坡先生^{으로} 視之^면 其有間乎^아 欲使之衣食以給
嫁娶^하 以時誦詩禮傳家^하 服仁義提躬而不欲使之疏而爲路人^하 流而爲工商皂隸者^이 其
情^이 其有窮乎^아 凡爲今日竺山之全氏者莫不以先祖之心^{으로} 爲心^하 勉其所欲而去其所不
欲則庶乎先王之教^이 由是譜而得之矣^라 豈曰小補之哉^아 是爲序^라

乙酉二月下澣 韓山 李象靖 謹書

先王孝友睦婣之教가 무너진 後로 譜牒法이 盛하게 되니 所謂世系를 잇고 昭穆을
 밝히므로 孝悌之心이 油然而 일어나서 아득하게 먼 百世에까지 이르게 되니 어찌
 그 功이 크다하지 않으리요. 大概 高曾祖以上은 아득하게 멀어서 잊혀지기 쉽고
 服盡한親戚은 점점 疎遠해져서 그情이 稀薄해지기 쉬우니 아득한 祖上을 잊지 아
 니하고 疎遠한 親戚을 더욱 親近하게 하려면 恒常 一氣相連한 理致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每樣 눈으로 익혀 봄으로써 恰似派流의 河川이 同一한 根源에서 始作되
 고 茂盛한 나무가지가 한 뿌리에서 자라났음을 알게되나니 暫時동안이나마 그 眞
 實한 天性이 틈틈이 일어나 어찌 그情을 더욱 親密하게 하지않겠는가. 이것이 곧
 歷代諸賢들의 譜牒法을 가장 正성스럽게 힘써 다뤘은 所以라 하겠다. 竺山全氏는
 멀리 羅麗時代의 顯族이며 菊坡先生에 이르러 文學으로써 賢良科에 올랐고 元朝

科制에도 及第하여 벼슬이 金紫에 이르렀으며 本國으로 돌아와 老退後에 省火川
 上에다 亭子를 세우고 逍遙自適하며 吟哦詩篇으로 餘年을 즐기셨다. 李益齋(齊賢)
 金蘭溪(得培)와 같은 諸賢으로 더불어 金石之交를 맺고 서로 唱酬한 事蹟이 東文
 選中에 班班하게 실려있으니 그 清風逸響의 情況은 靄然히 피어서 百世之後인 오
 늘까지 이르고 있다. 또한 그 後孫되는者 科宦이 끊이지 않고 縣縣히 이어져 더
 욱 繁盛함은 所謂 源遠流長하고 根深葉茂의 當然한 理致를 말해주는 것일러니 不
 幸하게도 累次임은 兵火로 譜系가 中絶하야 十八世以上은 可考할 바가 없는지라
 이에 雲溪公(諱以性)이 譜牒의 草를 닦고 佐郎公(諱命三號野隱)이 印刷할 計劃을
 세웠으나 마침내 成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遠近子孫들이 合心協力하여 先人들
 의 뜻을 이룩하게 되니 드디어 族譜는 完成되었다. 이제 卷首의 序文을 本人(象
 靖號大山)에게 委囑해 왔으므로 그 材木이 아니므로 辭讓했으나 不得已한 故로
 가로되 譜牒의 緊要性은 前述한 바와같으나 우리 菊坡先生은 文章懿德이 可爲百
 世의 師表가 됨은 世人共知의 事實이다. 하물며 一氣相連한 그 子孫된 者로 遠慕
 景仰之心이 어떠하겠는가. 大概子孫은 至親에서 總麻로 總麻에서 服盡으로 漸次
 疎遠해짐은 自然의 推勢라 하겠다. 그러나 菊坡先生으로 본다면 一視同仁의 같은
 子孫인즉 各自가 衣食이 自足하며 男婚女嫁를 適時에 하고 詩禮를 익혀서 傳家하
 고 仁義를 몸소 實踐할 것을 願하는 바이며 그 子孫이 疎遠해서 남과 같고 工商阜
 隸輩가 됨을 願치 않는 바이니 어찌 子孫에게 미치는 祖上의 情이 限이 있을 것

인가. 모름지기 오늘날의 竺山全氏는 그 祖上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아 그 願하는 바를 힘써 實行하고 그 願치않는 바를 버린다면 先王之教는 이 譜牒으로 代替해 도 거의 成就하게 될 것이니 어찌 그 功이 적다 할 것인가. 이로서 序를 하는 바이다.
乙酉二月 下澣 韓山 李象靖은 序하노라.

甲子十月 日 後孫 在魯 謹譯

舊譜序

我全氏原系 出自旌善^{하아} 世爲羅麗顯族而不幸自十九代祖 侍郎公以上은 譜牒中絶不傳^{가이라} 至十四代祖 菊坡公^{하아} 受勲封于竺山^{하아} 竺山은 即龍宮舊號也^라 子孫이 仍以爲貫焉^{하다} 菊坡公이 登麗朝文科^{하아} 以賢良^{으로} 入大國中制科^{하아} 官至光祿大夫兵部尚書^{하고} 及卷懷而東也^에 退老于縣西省火川之上^{하아} 本朝錫茅土以寵之^{고하아} 命就其宅傍構亭爲棲息之所^{하아} 惕若齋金公이 手書其扁曰清遠^{하아} 益齋蘭溪諸公이 相與詠歌其事^{하아} 至今照人耳目^{하아} 赫赫若前日事^{하아} 鄉之人士就遺墟^{하아} 立祠以祀之^{하아} 自菊坡公以來로 宗支衍碩^{하아} 分處於湖嶺之間而親盡族散^{하아} 吊慶不能相及^{일새} 五代祖雲溪公이 懼其寢遠寢疎^{하아} 遂至於忘也^로 爲修譜草^{하고} 族祖守分公野隱公이 繼其緒^{하아} 既成秩而迄今數十百年에 尚未入梓^{하아} 諸父若諸祖每以是爲恨焉^{이라} 迺者宗中老少聚而謀曰方今譜法이 興行於時^{하아} 舊家世族이 咸以是爲重焉^{하아} 甚厚道也^라 況吾宗이 已有前人成蹟而失今不圖^{하아} 使一束古紙로 久於篋藏^{하아} 因循之頃에 苟或水火虫鼠之不意^{하아} 不克蕝茨^에 罪無所逃^{라하아} 言出而衆議咸允^{일새} 遂命雲采^{하아} 與族叔禹濟氏^로 幹其役^{하아} 雲采等이 不敢以不能^{으로} 辭^라 悉力經紀者數年에 計其度置^{하아} 若可以支需

入之費^{하고}遂遍告各派^{하니}於是^에新寧近一氏^와永川宇樞氏^와舒川泰國氏^와各齎單而至^{하야}乃相與刪其煩剩^{하고}正其訛舛^{하야}去就裁酌^에各有條例^라使年少輩^로抄寫讎校^{하고}釐以爲上下二卷^{하야}印出而壽其傳^{하니}此實吾宗之盛舉而先代未遑之恨^을亦庶幾有所稱塞矣^라嗚乎^라譜者^난所以譜吾族也^라自小史之職^이不舉而私譜作於下^{하니}其所以奠系世收宗族^{하야}使人各知其本之所自出^과末之所由分^{하야}以相愛焉^{하니}猶有周官遺制而古聖王導民成俗之意^가盖不外於是矣^라仍竊惟念先祖菊坡公^이積之既崇^{하고}濬之既深^{하야}其光遠而其流益長^{하야}一子七孫^{으로}以洎曾玄之世而巍科清秩^이輝映地誌^{하고}箕溪公^이厚德不食^{하야}繼崇其址^{하고}叅奉公^은早遊陶山^{하고}雲溪公^은又出入寒岡愚伏兩先生之門^{하야}以文學^{으로}重光之^{하고}自此以後^로曾王考漁洲公^과從曾祖考休庵公^은以文行^{으로}登薦剡^{하고}野隱稷山三白堂諸公^은俱以科第^로致身^하雖時命^이有數^{라도}名位不滿而率皆被服文雅^{하고}敦行孝悌^{하야}入爲矜式乎鄉隣^{하고}而見重於儕流^{하야}建立一家家格^{하야}於以光前而垂後焉^{하니}至若永之兵使公叔侄^은繼擁閭節^{하고}舒之西岡公^은名載勝覽^{하니}皆先祖之聞孫^{이요}當世之偉人也^라是以^로世之數儒素之門^{하야}忠厚之族^에吾全氏未嘗不居一焉^{하니}此何莫非先祖垂錫之餘遺也^오然則爲吾先祖之子孫者^이其可不自各敕勵^{하야}思所以無忝者乎^아雖時世^이有古今^{하고}人品^이有高下而傳家軌範^은猶未盡泯於父詔兄勉^{하고}耳濡目染之餘者^이實惟在於謹守力行之如何^니凡我同譜之人^은其勉矣^라夫既竣事^에略記顛末^{하고}因書所感於心者如右^{하야}以備後日之攷據云爾^라

乙酉二月下澣^에下肖後孫雲采^난謹識^{하노}

國以史^와家而譜^난雖有大小公私之別^{이나}而究其所以樹風化敦孝悌之義則一而已矣^라以

故_로 凡厥德業文章之赫煒當世_와 彪炳史策者_난 又爲一家譜牒之冠首_라 公私文案_이 互相
 證驗_{하야} 以光國家_{하고} 補世教而垂無窮者_一 爲如何哉_아 然而有族有譜_는 其例已古而顧碩德
 大人_이 不世出_{하니} 往往起爲譜牒之鼻祖者_一 未必皆有勲業事功_이 載在史策之人_{이라} 如蘇氏
 族譜閱文章_이 大抵有聲於古今天下_{로되} 而長史味道_는 未聞大顯於唐初事蹟則以家譜而
 貫通乎國史_{하고} 與之大小並美_{하야} 終始相傳者_一 蓋無幾矣_라 然則得一光史策之傑然大人而
 特題家譜之首_에 有曰其先某如太史氏世家例云者_一 豈非千載之一大稀貴事蹟乎_아 竺山
 之全_이 粵自羅代_로 至于麗季而有若菊坡先生者_一 以德學經綸_{으로} 中中朝賢良科_{하야} 官至金
 紫_에 以我東繭馬役_이 爲積久痼弊_고 請于 朝_{하야} 特蒙蠲除_{하니} 此誠公不世大勲_{이라} 而民到今受
 賜_一 事在東史_{하니} 班班可考也_라 及其浩然東歸也_에 惟歛晦是尚_{하니} 大君子不言利澤_이 宛如
 泰山高岳之鎮物者_나 然_{이나} 嘗構亭于省川之上_{하고} 日徜徉吟哦_{하야} 嘗贈石交金蘭溪詩_{하니} 曰江
 闊脩鱗縱_{이요} 林深倦鳥歸_라 歸田_이 乃吾志_요 非是早知幾_라 菊坡先生晚節_을 觀於此詩_에 尤可
 驗矣_라 封竺山府院君_{하야} 後人_이 躋享于蘇川書院_{하니} 嗚乎_라 以如彼光史策之赫赫勲德_이 載
 之譜牒_{하야} 蔚然爲百代雲仍之鼻祖_{하니} 正如百川衆流之咸宗於一源_{하고} 千枝萬葉之俱本於一
 根則乃知竺山譜之以公爲開卷第一光彩_{하니} 雖謂之兼史家之體例_{라도} 可也_라 豈可以一家譜
 牒而小之哉_아 自是以來_로 子姓_이 益繁昌_{하고} 科甲_이 蟬聯_{하야} 譜不絕書_{하야} 繩武而趾美_{하니} 聯珠
 而合璧_{하야} 莫不以尊主庇民_파 敦親睦族_{으로} 爲家法_{하니} 雖或名在散班_{하야} 跡老林下_에 不甚隆赫
 于世_나 而一是保守先故_{하야} 規範大率_{하니} 羽儀明時_난 而有執義公_{하고} 主管山水_난 而有箕溪翁_고
 愛賞君子花_난 而有暎蓮堂_{하고} 奇寓歲寒節_은 而有梅菊軒_{하고} 周旋於退陶門下_는 而有蒼岩公_고

淵源於寒岡愚伏^은而有雲溪翁^{하고}至若可庵子之高標逸^과釣漁洲公之宿德純孝^와繼庵西
 崗休庵野隱知縣亞使公之雅望魁資^는實多見重於鄒魯鄉邦^{하야}前後二十餘世^에無論窮通
 顯晦^{하고}風流篤厚^에氣脉^이宏遠^{하니}此實菊坡先生盛德大業中來而古人所謂源遠流長^{하고}根
 深葉茂之理^를益不誣矣^라舊譜^를成於英廟乙酉^{하야}及今五十八年^에世代改易^{하고}人事變遷
 其勢浸浸疏遠^{하야}將至喜憂不慶吊之境而抑近世名諱科宦生卒年月亦不可徵矣^라遠近諸
 孫^이用是爲懼^{하야}乃合謀修譜^에圖所以繼刊^{하야}熙東氏熙吉甫聯書^{하고}起子侄齎大山李先生
 舊譜序^{하야}屬必奎以續成弁卷文字曰此非獨某等之願^{이오}亦佐郎君熙龍之意也^{할새}必奎累辭
 不獲^{하야}乃敢以史策譜牒之異例一義^로始末敘述^{하니}而若夫奉勉諸全氏之爲菊坡先生後者
 之宗旨則亦不外乎舊譜序所云^{하니}誦詩禮傳家服仁義提躬^이莫不以先祖之心爲心^{으로}立說
 焉^{라하노}

壬午陽月上浣 將仕郎 惠陵叅奉 西原鄭必奎 謹書

國家에 國史가 있고 私家에 譜牒이 있으니 비록 大小公私의 區別이 있다 하나
 그 風俗을 淳化하고 孝悌의 義를 敦篤히 하는 窮極의 目的은 같은 것이다. 그러
 므로 그 德業과 文章이 當世에 赫赫하고 史策에 빛나는 者로서 또한 一家의 冠首
 가 되어서 國家를 빛내고 世教를 도와 無窮한 後世까지 公私文獻에 相映되어 垂
 傳한다면 다시 없어 대견한 일이라 할 것이다.

저레마다 族譜가 있음은 이미 오래된 옛날부터이다. 도리켜 보건대 世上에서

드문 碩德大人이 往往譜牒의 鼻祖된 者가 반드시 勲功이 史策에 記載된다고는 할 수 없다. 例컨대 蘇氏族譜는 그 文章閱閱이 古今 天下에 名聲을 떨쳤으나 長史味道는 唐代事蹟에 記載됨이 없은즉 家譜가 國史와 서로 通하고 國史와 더부러 大小事實이 並美하고 始終相傳하게 됨은 實로 드문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國史를 빛내는 人物이 家譜에 冠首가 되어서 其先某라 하여 太史氏의 世家例에 이름과 같은 것이 어찌 千載의 一大稀貴事라 하지 아니하겠는가. 竺山全氏는 羅代로부터 麗季에 이르러 菊坡先生과 같은 偉人이 나셨으니 그 德學과 經綸이 中朝 賢良科에 拔擢되어 벼슬이 金紫光祿大夫에 이르렀다. 先生은 當時 우리나라에서 中朝에 바치는 繭馬役의 歲貢이 實로 痼疾積弊함을 痛感하고 中朝에 要請하여 特히 蠲除의 惠澤을 받게 되니 진실로 先生의 勲功은 우리 國民에 미치는 바가 至大하였으며 이事實은 우리 東國史에 班班히 記載되어 있는바이다. 其後 先生은 浩然히 歸國하여 隱退하시고 오직 그 功績을 歛晦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大君子가 不言利澤이나 宛然히 泰山高岳之鎮物者와 같은 것이라 하겠다. 先生은 일찍이 省火川上에 亭子를 짓고 날로 徜徉吟哦 하였으며 일찍이 石交의 友情을 맺은 金蘭溪에게 주신 詩에 이르기를 江濶修鱗縱하고 林深倦鳥歸라 歸田乃吾志는 非是早知幾아(江이 넓으니 물고기가 마음대로 뛰어놀고 호이 깊으니 나르든 새가 지치면 돌아온다. 이에 田園으로 돌아온 나의 뜻은 일찍이 기약한 바가 아니었던가)라고 하였으니 菊坡先生의 晩年光景은 이 詩로서도 可히 짐작할 수가 있다. 朝廷에서 先生을 竺

山府院君에 封하니 士林에서 蘇川書院을 짓고 躋亭하기에 이르렀다. 아! 이와 같이 赫赫한 光彩가 史策에 빛나고 不滅의 勲德이 譜牒에 실리게 되니 蔚然한 子孫의 百代에 鼻祖라 할 것이다. 이는 마치 百川衆流가 흘러 함께 宗源을 이루고 千枝萬葉이 한 뿌리에 根本을 같이한 것인즉 이에 淸山譜를 펴쳐봄에 先生은 第一光彩로울 뿐만 아니라 오직 史家の 體裁를 兼備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어찌 一家의 譜牒으로만 過小評價할 수 있겠는가. 이로부터 子孫이 더욱 繁昌하고 科甲이 連綿하여 譜牒에 끊이지 않으니 所謂 繩武而趾美하고 聯珠而合璧이라 할 것이며 이는 곧 나라를爲하고 民生을 庇護함이라 할 것이다. 敦親睦族을 家法으로 삼고 繼繼承承한 子孫中에는 例컨대 大概 옛 規範을 固守하고 明時에 模範的行實로 有名한 執義公이 있고 山水를 管營한 箕溪公이 있고 君子花를 思慕하여 蓮을 사랑하는 映蓮堂이 있는가 하면 歲寒節에 清節을 崇尚하는 梅菊軒이 있고 退陶門下에서 性理學을 닦은 四友堂이 있는가 하면 寒岡 愚伏의 淵源을 이어 받은 雲溪公이 있다. 可庵公의 高標逸韻과 漁洲公의 宿德純孝는 當時에 有名하였으며 其外에 繼庵 西崗 休庵 野隱 知縣 亞使의 諸公들의 雅望과 魁資는 實로 鄒魯之鄉을 다시 보는 듯하다. 前後 二十餘世를 通하여 風流가 篤厚하고 氣脉이 宏遠하니 이는 實로 菊坡先生 盛德의 淵源이라 하겠으며 古人이 이른바 根源이 멀면 흐름이 길고 뿌리가 깊으면 枝葉이 茂盛하다는 理致를 더욱 確信케 하는 바이다. 舊譜는 英廟乙酉에 完成되었으나 去今 五十八年이 經過하였으며 世代가 바뀌고 人事가 變遷함

에 따라 暮功이 總麻가 되고 袒免에서 親盡이 됨은 自然의 理致라 하겠으나 同本
 으로서 各處에 散在하여 늙어서 生을 마칠 때까지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하고 漸漸
 疏遠하여 將次 吉凶事에도 서로 慶吊의 뜻을 이루지 못함은 自然의 趨勢일 것이
 나 더욱 近世에 와서 名諱科宦 生卒年月까지도 考證할 길이 없어 遠近 諸孫들이
 이를 걱정하고 合議한 結果 修譜 繼刊하기를 圖謀하여 熙東氏 熙吉氏의 聯書와
 大山李先生의 舊譜序를 그 子侄로 하여금 必奎에게 보내고 弁卷之文을 委囑하여
 가로대 이는 우리들만의 願함이 아니라 佐郎君 熙龍의 뜻이라 함으로 必奎는 固
 이 辭讓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이에 敢히 史策과 譜牒의 異例一義한 始末을 叙
 述함이 萬若 全氏宗旨에 어긋남이 있지 않음과 두려워하는 바이며 舊譜序에 이른
 바와 같이 誦詩禮로 傳家하고 服仁義로 裨躬함이 곧 先祖의 마음을 그대로 履行
 함이 됨을 立證하는 바이다.

壬午陽月上浣 將仕郎 惠陵叅奉 西原 鄭必奎 謹書

甲子十月日 後孫 道成 謹譯

乙酉之譜刊_이 已久_라 先父老每欲繼述_{하야} 純廟己巳_에 修譜草而未克印_{하고} 後壬午暨辛丑_에
 論議才發旋止_{하니} 觀於魯庵公序文_에 可知己_라 迺於辛亥春_에 文以告各派_{하야} 圖厥亟成而物
 力_이 凋殘差池_{하야} 至翌年壬子_에 始告功_{하니} 百年未遑之舉_를 於茲得成而惟舒川一派_一 道里
 脩貧_{하고} 單草後時_{하야} 竟至闕漏_{하니} 誠宗黨之所共慨然者也_라 後之續此譜者_一 更爲釐正_{하야} 益
 修敦睦之誼幸矣夫_니 壬子二月上浣_에 後孫 基永_은 謹書_{하노}

吾全氏自華而東^{하아}顯于羅濟^에有歡城君旌善君^이爲大祖^{하아}名公巨卿^이世濟其美^에旌善而分^{하아}移貫竺城^{하아}事蹟^이荒遠^{하아}譜系中絕^{이라}侍郎公^은寔爲我中始祖^라至菊坡先生^{하아}後昇昌衍^에徧于近遠^{하아}從先祖雲溪公^이修草譜^{하고}野隱公^이志繼述而未克剗^{하아}泐^{하아}英廟乙酉^에先父老始成書而印布^{하아}歲且百^{이라}每欲重刊未遑焉^{하아}莫不慨恨^이矧又中歲^에偷譜間行^{하아}李崇之尊義甫^와羅威之引羅隱^과崇輅之祖汾陽^이疑眩衆目^{하아}貽譏千古^라金根誤字^와昭穆失序^가何莫非原譜未修之致然歟^아是庸僉論懔然^{하아}竭誠圖成^을自辛亥春始^{하아}歲一周工告訖^{하아}竊念姬周之盛^에有小史氏之職記^{하고}有大小宗之別則尚矣^라族譜書^난自眉蘇氏^로始考其序^{하아}專以敦孝悌修睦^{으로}先重^{하아}歎夫一人之身^이分而至塗人^{이라}信乎君子格言^이爲後人指南^{하아}凡我宗盟^이苟能體先祖一視心^{하아}喜而慶^{하고}憂而吊^{하아}既無論親疏遠近貧富貴賤^{하고}一是皆以敦睦相勛則雖不待譜牒^{이나}固當有孝悌之心^이油然而生者而若夫總免已盡^{하아}若湖若嶺^에星羅碁布^와春糧莫及^에自幼至老死^히不相往來者間有之^{하아}苟非吾譜牒之詳開卷瞭然則何由知某某之爲第幾行而叙親親之情哉^아且吾宗^이己季世矣^라肉譜者幾人^고此吾譜之所以述先志而成者也^라時玄默困敦夾鐘哉生魄(壬子二月十六日)後孫弘奎謹書

凡我氏全^이本於旌善^{하아}自羅麗之時^로鬼勲大德^이輝赫相承^{하고}錫土封爵^이有十四公^{하아}各爲一派^{하아}貫鄉之鼻祖而惟我先祖菊坡先生竺山君^이亦居一焉^{하아}竺山^은即龍宮舊號也^라今我同譜之人^은是竺山一家之孫也^라粵修譜始於英廟乙酉而自忠烈公至文貞公以上^은幾代中絕無攷故^로以文貞公爲中祖^{하아}更起一世^{하고}以俟後日^{이라}後辛亥之譜^를亦仍舊刊行^니

且其後辛巳之譜_에 博采深搜_{하야} 得於旌善家舊本而 忠烈公以下十一世_를 昭載繼續_{하니} 撫念
興感_이 庸有其極乎_아 迺者乙卯秋歲奠之日_에 各派諸宗_이 合席竣議_{하고} 粵明年_에 有定司文_{하야}
以播告嶺湖各派_{하야} 一乃心力_에 始欲敦事_{하니} 時異事殊_에 延掇今日_{하야} 財屈舉贏_에 無以支算_라
至於讎校_에 殆不負世系承統之義_{하니} 亦不違前人繼述之事_라 依辛巳譜_{하야} 繼其中絕_{하고} 以引
勿替_를 依乙酉譜_{하야} 以文貞公_{으로} 更起一世_{하고} 以存謹慎_{하니} 竺山之譜於是焉完備矣_라 噫_라 自
寺正公一人之身_{으로} 至五百餘年之久而分作千億之身_{하니} 俱是在曾玄之曾玄_{이라} 百世貽謨_一 必
欲家家衣食以給_{하고} 人人詩禮乃服_{하야} 一視而均感之_를 奈之何我諸孫_이 不體此心_{하야} 爲服盡
而踈遠之_{하고} 爲澤斬而寢忘之_{하야} 天叙之倫_이 幾於斃絕_{하니} 此前人所以有譜法而修睦誼者也_라
望須僉宗_은 以寺正公心_{으로} 爲心而克圖爛熳同歸哉_느 丁巳二月上澣_에 後孫孝永_은 謹識_{하노}

譜者_는 收其族而尊祖_{하야} 不忘其本源之義也_라 盖曰宗曰族_은 究其本源則迺父子兄弟而
服盡親盡_{하고} 以至踈遠_{하야} 散在下方_에 面目_이 不接_{하고} 聲息不通_{하야} 邈然如路人_{하니} 古人所以兢
兢乎尊祖敬宗之道_{하야} 合其族而修其譜_{하고} 明昭穆奠世系_{하니} 是爲有家之先務也_라 有譜則遠
者近_{하고} 踈者亦親_되 無譜則近者遠_{하고} 親者返踈_{하니} 帝堯舜九族之親睦_이 於乎顯_{하고} 周家百世
本支克關厥後_{하야} 氏葉炳靈_{하니} 豈不偉哉_아 噫_라 以宋朝之隆盛_{으로} 程夫子尚歎其無百年家_니
況以我東之偏荒而吾全之受姓_이 上下二千有餘禩_에 惟我祖先_이 惟恨譜牒之無傳_{하야} 殫誠
盡力_{하야} 克遵眉蘇氏之模楷_{하야} 始成乙酉之譜_{하니} 功施到今_에 遺澤_이 尚存_{하니} 子孫者_一 豈不起
敬哉_아 其後辛亥辛巳兩年之譜_를 先父老克修編輯_{이나} 然_{이나} 未能盡詳_{하야} 至于丁巳_에 更修舊
日家聲_{하야} 以叙親親敦睦之誼者_一 凡九卷_에 亦過一世有紀矣_라 氣數一環之際_에 人事之隨

而變遷^{하야}亦不無其理^{하니}將未知前津之如何^라迺與族叔禮永氏^로克發峻議^{하야}通告于湖嶺
 各派^{하야}無不銅山響應之理^{하야}一乃心力^에各齎單而注至^{하니}數次闕漏舒川一派^一亦入單^{이라}
 前日先父老日後釐正之戒^를已遂^{하고}百世親睦之誼^를更新^{하니}豈不欣喜哉^아凡我今日之譜^난
 先世未遑之盛舉也^라今爲吾族者屬已疎而親雖盡^{이나}莫不推五宗之義敦百代之好^{하야}承先
 謨而貽後穀勿替引之則叙彝倫^{하고}厚風化^{하야}一開卷而肅然若祖先儼臨^{하야}昭穆傍列^에諸孫^이
 布載下系^{하야}又若唯諾於一堂^에昔之容音漠然不相往來者至此益敦親愛^{하야}孝悌之心^이油
 然而生者豈欺人哉^아收衆心而成是譜者^반族叔禮永氏之賢勞^와世永氏之掌其財而謹信
 節約之功也^라豈不贊賀哉^아歲乙未五月上澣後孫相稷謹識

龍宮全氏世譜卷之天

一世

始祖全聶

百濟溫祚王朝以十
濟功臣佐輔封歡城
君時漢成帝鴻嘉三
年癸卯○壇享于高
陽郡崇仁面里門里
天藏山下乾原

二世

子虎翼

多婁王朝左丞相

三世

子槃

郎將入漢爲驃騎大
將軍立勲封關西弘
農侯諡文忠
配白氏父尙書憲墓
弘農谷南

四世

子舜成

太子太傅諡文正
配王氏父太尉安墓
在弘農

五世

子汝均

尙書諡文憲○配鄭
氏父郎將旭墓在弘
農

六世

子雲喬

尙書諡忠達○配尹
氏父侍中復興墓在
弘農

七世

子元根

元根

원근

尙書諡武節○配羅
氏父尙書弘佑

八世

子愔

선

奉翊大夫副知密直
司事封旌善君仍以
爲貫乙未九月十五
日卒墓旌善郡瑞雲
山坤向
配貞敬夫人奈城辛
氏父府院君玼墓公
墓同原

九世

子方春

방춘

新羅寶聖王朝拜大
將軍兼太師赴中朝
拜三司太常卿○配
王氏父提學允

十世

子敬智

경지

通直郎○配金氏父
佐平雄

十一世

子而敏

이민

官伊浚紫金禦帶墓
平津西村○配劉氏
父提學成公

十二世

子璵

환

禮部侍郎諡文簡墓
陵山東谷○配都氏
父文學應奎

十三世

子億鈞

子萬鈞

十四世

子天奇

천기

十五世

子禹相

우상

十六世

子以甲

이갑

十七世

子輔仁

보인

十八世

子彥

언

十九世

子咸正

천

億鈞

억균